세상에 관해 아는 것은 모두 대중매체를 통한다

매체의 역사 읽기

안드레아스 뵌 외 지음·이상훈 외 옮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정보사회가 발달할수록 매체의 영향은 점차 확대된다. 다양한 매체를 접하며, 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 역량이다.

역설적으로 매체가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생활 너머의 영역을 매체를 활용해 접한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대중매체를 통해 아는 것이다"고 했다.

매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교양서적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뵌 카를스루 공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수와 안드레아스 자이들러 쾰른 대학 독문과 선임연구원이 쓴 '매체의 역사 읽기'가 그것.

책은 간략하고 쉬운 설명, 생생한 예를 통해 사회와 매체의 관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했다. 복잡한 테마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입문서 성격의 서적이다.

매체는 어떻게 발전해왔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나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매체를 분류할 수 있을까.

저자들은 동굴벽화에서부터 문자, 이미지를 거쳐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역사를 포괄한다. 매체 연구의 접근법은 물론 매체의 수용과 변화까지 담아낸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야콥슨 의사소통 이론과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 이론 등 기초적인 이론과 매체 개념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랑그아 파롤 같은 기호로서의 언어와 이미지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언어를 토대로 한 매체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문자의 탄생이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만날 수 있다.

15세기 중반 세상에 나온 인쇄술은 현대사회 탄생의 초석이 됐다. 대표적인 신문과 잡지는 시민의 공론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파생시켰다. 저자들은 이미지 매체에 주목해 언어와 이미지 상호작용을 변천 양상에 따라 추적한다. 이미지와 문화적 맥락 간 연관성, 텍스트와 이미지 관계를 매체의 혼종성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3부에서는 사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디지털 매체,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의 순서로 고찰한다.

"라디오 기술의 사용은 처음에는 전화를 모범으로 삼았다. 중요한 차이는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한다는 점이다. 초창기의 전화는 오늘날처럼 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보수를 지불하면 오페라 공연 같은 것을 전화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청취 공간이 설치되었다."

4부는 매체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매체의 자기 반영, 매체의 발전 방향 등을 거시적 관점에서 다뤘다.

이처럼 저자들은 급변하는 새로운 매체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책에는 200여 장의 이미지가 수록돼 있어 매체 역사와 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책을 번역한 강릉원주대 이상훈·황승환 교수는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매체의 발전 과정을 기술하면서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고 수용되었을 때 어떠한 사회적, 정신적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고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과지성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처음으로 동일한 텍스트를 대량으로 보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15세기 번역가로 활동한 장 미엘로의 초상. 〈문학과지성사 제공〉

미술 작품으로 만나는 101가지 '인간' 이야기

더 갤러리 101-인간다움의 순간들

이진숙 지음

클래식 음악 전문기자 문학수가 쓴 '더 클래식 101'(전 3권·돌베개 간)은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 음악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101곡을 소개한 책이다. 작곡가와 작품, 연주에 대한 풍부한 지식 뿐 아니라 인문학적 식견과 유려한 글쓰기가 어우러진 책에는 각 작품 별로 3장의 추천 음반도 소개돼 있어 음악 감상에 도움을 준다.

돌베개가 이번에 새롭게 펴낸 '더 갤러리 101'은 '더 클래식 101'의 미술 버전이다. 독자들을 작품 속으로 안내하는 이는 역사와 미술을 접목한 베스트셀러 '시대를 훔친 미술'의 저자 이진숙.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작품을 소개한 전작을 읽었던 이들이라면 이번 시리즈를주저없이 집어들 터다.

모두 3권으로 기획된 '더 갤러리 101'은르네상스부터 21세기까지 예술가 101명의 미술 작품 속에 담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세상에는 사랑, 진실, 공감, 정의, 자유, 평등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자산이다. 그림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압축한 새로운 인물들이다. 때론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인간들이지만 불완전함을 자각했기에 역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첫 권 '더 갤러리 101- 인간다움의 순간들:흔들리는 삶이 그림이 될 때'에서는 '지금, 여기의 인간-르네상스', '왕, 시민, 그리고 나-매너리즘, 바로크' '사랑 혹은 혁명-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등 3부로 나눠 '인간다움'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좇는 33명의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첫번째 이야기는 최초로 원근법을 적용한 화가로, 낙원에서 괴로운 표정으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그린 마사초의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으로 시작하며 마지막은 눈폭풍을 그리겠다며 직접 바다로 뛰어든 윌리엄 터너의 작품 '눈보라'가 장식한다.

책에서 만나는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처럼 많이 익숙한 작품도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처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도 다수 등장한다. 저자는 유명도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주제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책에서는 얀 페르메이르의 '음악수업', 자크 루이 다비드의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 외젠 들라쿠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 대 피터르 브뤼헐의 '농부의 결혼식'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각 그림 뒤에는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정보를 함께 실었다.

오랫동안 예술의 전당 등에서 미술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저자는 "미술사는 처음 읽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미술사 공부를 한 독자에게는 예술형식과 인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다정한 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한다.

앞으로 발간될 2권은 라파엘 전파부터 인상주의, 후기 인상파, 미래주의, 표현주의를 아우르며 3권은 초현실주의에서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미술을 다룰 예정이다. 〈돌베개·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재미란 무엇인가? = '재미'란 무엇일까? 행복이나 즐거움과 어떻게 구분할수 있을까? '재미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책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재미라는 현상에 대한 최초의 사회학적 연구를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재미, 성인기의 재미, 일터에서 경험하는 은근한 재미, 그리고 재미에 대한 우리의 생생한 경험을 탐사한다. 〈팬덤북스·1만6000원〉

▲에코페미니즘 = 사회학자인 마리아 미스와 핵물리학자인 반다나 시바의 공저로 1993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의 결합을 통해 발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사회를 전복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에코페미니즘의 역사를 통해 여성과 자연을 물질적으로 착취했던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과 여성 억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개정판 출간의 의의를 되짚는 저자들의 서문을 더했다. 〈창비·2만5000원〉

▲인권사회학의 도전 = 더 나은 인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인권사회학 안내서이다. 엘리트와 민중,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인권의 역사를 돌아보고 보편주의와 문화 다원주의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 인권 담론의 의미와 한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피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여러 다양한 권리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간다는 것에 주목해 인권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교양인·1만8000원〉

▲저글러, 땜장이, 놀이꾼, 디지털 세상을 설계하다 = 정보의 현대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정보혁명의 토대를 닦은 미국 천재 수학자 클로드 섀넌(1916~2001)의 일대기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를 마련한 천재 수학자이자 과학자로 알려져있으며, 최초로 0과 1의 2진법, 즉 비트(bit)를 이용해 문자, 소리,이미지 등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창조적 혁신가'이다. 〈곰출판·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동네에서 제일 못된 아이 = 우리 주변에 한 명쯤은 존재하는 심술쟁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날 유령이 심술쟁이에게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지만 심술쟁이의 심술탓에 유령들마저 모두 달아난다. 이런 심술쟁이가 과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교우 관계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난 그냥 나야 = 초승달이 손톱 모양을 한 것은 동그란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에서 출발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 사회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다보면 온전한 '나'를 잃어버린다. 책은 성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도 더욱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바람의아이들·1만3000원〉

▲미생물은 힘이 세! 세균과 바이러스 = 세균 삼총사를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로운 세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미생물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세균 나라 삼총사가 지구를 정복하러 왔는데 삼총사의 존재를 안 사람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개발했다. 삼총사는 어떻게 될까? 〈지학사 아르볼·1만1000원〉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